

## 부모의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아동의 정서· 행동문제의 관계: 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 및 양육행동의 순차 매개효과

Received: January 25, 2026  
Revised: February 27, 2026  
Accepted: March 3, 2026

김동현<sup>1</sup>, 조한익<sup>2</sup>  
한양대학교 러닝사이언스학과/ 박사과정<sup>1</sup>, 한양대학교 러닝사이언스학과/ 교수<sup>2</sup>

교신저자: 조한익  
한양대학교 러닝사이언스학과,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The Effect of Parent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n  
Children's Emotional-Behavioral Problems: Sequential Mediation  
of Parental Positive Emotion Expression and Parenting Behavior

E-MAIL:  
1990434@hanyang.ac.kr

Donghyeon Kim<sup>1</sup>, Hanik Jo<sup>2</sup>  
Department of Learning Science, Hanyang University/ Student<sup>1</sup>  
Department of Learning Science, Hanyang University/ Professor<sup>2</sup>

### ABSTRACT

본 연구는 부모의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의 정서·행동문  
제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긍정적 양육행동이 미치는 순차 매개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자기보  
고식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부모의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긍정적 정  
서표현성, 긍정적 양육행동,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를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Hayes(2018)의 Process Macro Model 6를 사용하여 검증한 결과, 부모의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간의 관계에서 긍정적 정서표현성  
과 긍정적 양육행동의 순차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부모의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정서표현-양육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경험적으로 검증함으로써, 부모 교육 및 상담 등의 장면에서 부모의 인지적 정서조  
절 전략을 향상시켜 긍정적 정서표현과 양육행동을 촉진시키는 인지적·정서적·  
행동적 개입이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를 완화하거나 예방하는 과정이 될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긍정적 정서표현, 긍정적 양육행동,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 Copyright 2026,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  
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는 생애 발달 과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초등학교 시기의 정서·행동문제는 학급 적응과 사회 적응을 비롯하여 학업 성취와 과제 수행, 집행기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노원경 등, 2013; 백승영, 2016; 하문선, 2021). 초등학교 학령기의 아동은 정서적인 부적응과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행동 문제가 새로 수반될 수 있고, 학교에서 집단생활을 하며 다양한 정서·행동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이다(장희선, 2023; 조미정, 이주연, 2022).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는 매년 1학년,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여 관심군을 선별하고 있다. 고위험군이나 관심군으로 선별된 아동들은 병원 및 상담 의뢰 등의 사후관리가 실시되고 있지만, 관심군 경계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학생들도 존재한다(박상현 등, 2023). 이렇듯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를 다루는 것이 중요하지만, 많은 선행연구들이 정서·행동문제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유아기나 청소년기 아동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길혜지, 황정원, 2017; 김청 등, 2015; 천순미, 이경민, 2023).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들의 정서·행동문제는 유아기나 청소년기처럼 증상이 급격하거나 뚜렷하지 않고, 발달 과업 중에 나타나는 과정이라는 생각 때문에 간과되기 쉽지만(정현희, 오미경, 2000), 이 시기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해 다루는 것을 놓친다면, 사회성 및 언어발달과 더불어 정서적 발달 및 그 이후의 삶까지 놓칠 수 있다(라성윤, 202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는 아동이 겪는 심리적·행동적 부적응의 결과를 말한다(전인옥, 2012). 정

서·행동문제는 불안이나 우울 등의 '내재화 문제'와 공격성과 과잉행동 등의 '외현화 문제'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아동은 이들 두 문제가 동시에 예측되어 공존할 가능성이 있다(이도현 등, 2024). 많은 선행연구들이 아동의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를 구분하여 연구하였지만(배민정, 정윤경, 2015; 봉지희, 최은실, 2021), 아동기에는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구별이 어렵고, 조기에 발견하기도 쉽지 않아(이승희, 김광웅, 2004) 아동의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서문제와 행동문제를 함께 바라보았다.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은 크게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백예은, 정혜원, 2024; 이원령, 이은정, 2014).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통제적 양육태도나 부정적 정서표현, 정서표현양가성이 자녀의 정서·행동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위험 요인을 밝히는 데 집중해 왔다(고미숙, 2015; 김명순, 2013; 박혜련 2003). 그러나 아동의 발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위험 요인의 제거가 아동의 건강한 정서와 행동을 보장하기보다는 정서·행동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보호 요인들을 찾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적 요인 중, 가장 직접적이고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바로 '가정'이고(라성윤, 2024; 이정미, 양명숙, 2006), 부모의 역할에 따라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홍서준, 최아영, 2024). 가정은 아동이 정서적으로 가장 많은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곳이기(정윤경, 박보은, 2010),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긍정적 심리자원과 보호 요인을 우선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부모의 긍정적인 심리 내적 자원과 자녀의 정서·행동문제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Bandura(1977)의 사회학습이론에 따르면 자녀는 부모의 정서적 대처 방식을 관찰하고 모방한다. 즉, 부모의 정서나 행동을 자녀가 모델링하여 학습한다는 말이다. 또한, Eisenberg 등(1998)의 정서 사회화 행동(emotion-related socialization behaviors, ERSBs)에 따르면 부모가 어떻게 정서를 '조절'하고 '표현'하며 '행동'하는지가 자녀에게 모델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아동의 정서조절과 표현능력은 단순히 내재적으로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정서적 반응을 관찰하고 모방하는 정서 사회화 행동 과정을 통해 학습되고 정교화된다고(Spinrad & Eisenberg, 2023).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정서 조절과 정서 표현 및 행동이 자녀의 정서적 적응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부모의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정서표현',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Gross(2015)의 정서조절 과정 모델(Process Model of Emotion Regulation)에 따르면, 정서 조절 및 표현은 정서가 발생했을 때 가치 평가를 하여 조절의 필요성을 식별하고 전략을 선택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이는 정서가 생겨나고 표현하기에 앞서 인지하고 선택하는 인지적 과정이 선행된다는 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모델을 근거로 하여 부모의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부모의 정서표현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또다시 양육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상담심리치료 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Ellis(1994)의 인지정서행동치료(REBT)나 Beck(1976)의 인지치료(CBT)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어떤 행동의 원인에는 인지가 선

행요인이라는 점에서 부모의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부모의 정서표현과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해볼 수 있다. 특히, Dix(1991)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조직화하고 이끄는게 바로 '정서'라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정서표현, 양육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경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란, 개인 내적인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를 환경에 대응하여 적절히 바꾸고 조율해 나가는 내적 처리 과정을 말하며(강민경, 2018; Greenberg, 2002), 인지적으로 정서적 정보를 다루고 정서적 경험을 재평가하며 강도를 조절하여 부정적 정서로 인한 고통을 조절해 주는 능력을 말한다(김영수, 2022).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부모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의 정서·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을 예측하기도 한다(Morelen et al., 2016; Zimmer-Gembeck et al., 2022).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Garnefski et al., 2001).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자기 자신의 정서적인 상태를 명확하게 인식하며 다양한 상황 속에서 정서에 압도되지 않고 인지적으로 정서를 처리하는 전략을 말한다(김은영, 2009).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정서적인 반응을 조절해주어 심리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한다(Garnefski & Kraaij, 2007).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가정 내에서 부정적인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고(김예진, 이동귀, 2021),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좋으면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홍애경, 2000). 선행연구에서는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완벽주의, 스트레스, 심리적 통제 등의 변인에서 단순 매개변인으로 바라보았지만(김예진, 이동귀, 2021; 남연서, 홍혜영, 2022; 성민아, 이영애 2020),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적응적 인지적 정서 조절 전략을 예측변인으로 하여 어떤 경로를 거쳐 자녀의 정서·행동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관계를 맺고 애착을 갖는 대상으로 자녀의 발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다(김명순, 2013). 부모의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뿐만 아니라, 부모의 정서표현 역시 자녀가 관찰하고 모델링하여 자녀 스스로의 정서를 구성하고 내면화한다(Spinrad & Eisenberg, 2023). 아동은 가정 속에서 부모의 정서표현을 통해 정서를 학습하고 효과적인 정서표현 방식을 배운다(김청 등, 2015). 따라서 부모의 정서표현은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유효정, 박용한, 2022; 이하늘, 김정민, 2022).

정서표현성이란, 표정을 비롯하여 언어적·비언어적 정서를 밖으로 표현하는 정도를 의미한다(Halberstadt et al., 1995). 정서표현은 개인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정서표현을 너무 억제하면 스트레스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반면에(Gross, 2015, Zimmer-Gembeck et al., 2022), 정서표현 수준이 높은 사람은 심리적·신체적 건강과 대인관계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MacNeill & Pérez-Edgar, 2023). 단순히 정서표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서를 표현할 때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수준 높은 정서표현이라 할 수 있다(정호영, 최은실, 2020). 자녀는 부모의 정서표현성을 관찰하고 모방하게 된다(한소현, 2020). 자녀는 부모의 긍정적 정

서표현을 배움으로써 긍정적인 태도와 충만한 기쁨으로 스트레스와 고통을 덜 느낄 수 있다(유주희, 2009). 부모의 정서표현성은 본인의 감정을 표정이나 목소리 등으로 가족에게 드러내는 경향성으로, 특정한 목적을 갖지 않더라도 나타나는 부모의 정서적 기질이나 분위기를 말한다(유효정, 박용한, 2022; MacNeill & Pérez-Edgar, 2023). 즉, 부모의 정서표현은 자녀와 직접 상호작용할 때의 정서도 전달되지만, 부부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표출되는 정서표현까지도 자녀에게 전달될 수 있다(한영민, 2005). 정서표현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부모의 정서표현성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이나 양육행동을 통한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주력해왔다(김선희, 김경연, 2001; 천순미, 이경민, 2023).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정서표현이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반응에 그치지 않고, 인지적 정서조절이라는 내적 처리 과정과 어떻게 통합되어 이어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부모의 양육행동 역시 자녀의 발달단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권미나, 2025).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경험한 자녀는 정서·행동문제가 낮았다는 선행연구(안지영 등, 2021; 허묘연, 옥정, 2013; Danzig et al., 2015)를 비롯하여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정서·행동문제와 큰 연관이 있다는 연구들(길예지, 황정원, 2017; 라성운, 2024; 유지연, 황혜정, 2017)을 보았을 때,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정서·행동문제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애정-거부, 자율-통제의 축을 바탕으로 네 유형으로 나누는 Schaefer(1959)의 양육태도를 많이 활용하였다(김명순, 2013; 배민정, 정윤경, 2015; 임숙현, 광경화, 2023). 이는 부모의 통제와 애정을 기준으로 양육행동을 유형화한 것이다. 하지만 아동의 정

서·행동문제를 예방하고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의 구체적인 상호작용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이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의도적이고 직접적인 행동과 태도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애정으로 대하는 보살핌, 자녀를 존중으로 대하고 수용하는 태도 등을 포함한다(임정하, 200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건강한 정서·행동 발달을 돕는 보편적이고 핵심적인 양육 가치인 ‘관심과 존중’에 초점을 맞추어 긍정적 양육행동을 바라보았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안정적인 학교 생활과 정서 형성을 비롯하여 삶의 전반적인 긍정적 태도를 지니도록 해준다(이지연, 김혜연, 2017). 이경석 등(2017)의 종단연구에 의하면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부정적 양육 경험이 6년 뒤까지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위축과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부모가 자녀에게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에게 긍정적인 행동을 학습하고 내면화하도록 하여 자녀의 정서·행동문제를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한다(Gong et al., 2022).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정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개인 심리 내적 자원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자녀의 특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프로세스(Belsky, 1984)를 바탕으로 자녀의 정서·행동문제와 관련된 변인들을 탐색해 보았다. 이에 부모의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정서표현성, 양육행동 및 자녀의 정서·행동문제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부모 개인의 정서가 유발되었을 때 인지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면 본인의 정서적 표현과 행동적 표현을 변화시킬 수 있다(Gross & John, 2003). 따

라서 부모의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부모의 정서표현성에 영향을 미치고, 양육행동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정서표현에 영향을 미치고(강갑주, 2016; 박근아, 2017; Ulfing et al., 2016), 양육행동과 태도에도 영향을 준다(김예진, 이동귀, 2021; 김희경, 이완정, 2022; 정명아, 김연수, 2025). 또한, 부모의 정서표현성도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배민정, 정윤경, 2015; 박선영, 2010; 천순미, 이경민, 2023).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어머니의 개인 요인과 영유아기 자녀의 정서·행동문제 간의 관계를 보는 연구가 많았다(김명순, 2013; 정명아, 김연수, 2025; 정호영, 최은실, 2020). 하지만 최근 자녀 양육은 일방적 책임이 아닌 부모가 함께 양육하는 공동 양육의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성별에 따른 양육 역할 차이를 구분하기 보다는 부모 모두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정서표현 및 양육행동이 자녀의 정서·행동문제에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다. 그리고 유아의 정서·행동문제도 중요하지만,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청소년기와 성인기까지 장기화될 수 있고 전인적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김선희, 김경연, 2001), 학교에서의 적응과 학업 성취 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백승영, 2016; 하문선, 2021), 이 시기의 정서·행동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에 긍정심리학이 발달하고 자기결정성 이론이 등장하면서(권미나, 2025), 긍정성과 자율성이 개인 내적인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부모의 긍정적인 요인에 집중하고자 하였

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정서표현양가성, 우울, 양육 스트레스 등 부정적 요인들에 집중한 연구들이 많았지만(박근아, 2017; 한소현, 2020; 홍서준, 최아영, 2024), 부정적 증상의 제거가 곧 긍정적 발달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에(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 부모의 긍정적 심리자원을 바탕으로 자녀의 긍정적 발달에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정서·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부모의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긍정적 양육행동이 순차 매개할 것이라는 모형(그림 1)을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부모의 양육행동을 개선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Shonkoff & Phillips, 2000), 부모가 적응적으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잘 다루면 정서표현성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정서표현성이 긍정적으로 바뀌면 양육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어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아동의 정서·행동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큰 영향을 미치는 부모 요인에 대한 경로를 파악하여 부모 교육이나 상담 및 가족 상담 시, 인지적·정서적·행동적 개입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연구 문제 1.** 부모의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 부모의 긍정적 양육

행동과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부모의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 및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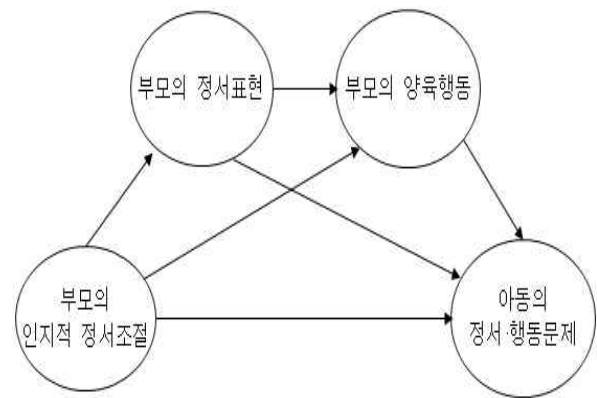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250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되었다. 한 자녀에 대한 부모 한 쌍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를 각각 독립적인 개별 표본으로 무작위 표집하였다. 과거의 선행연구들은 자녀의 양육 주체를 주로 어머니로 한정하는 연구가 많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성별이나 주양육자에 국한되지 않고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부모 전체를 하나의 모집단으로 연

구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에 연구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변인 간의 차이가 있는지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 $t = .963, p > .05$ ), 긍정적 양육행동( $t = -1.149, p > .05$ ),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t = .844, p > .05$ )에서 남성(아버지)과 여성(어머니)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긍정적 정서표현 변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t = -2.510, p < .05$ ),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전반적으로 긍정적 정서표현 수준이 높다는 기존 선행연구들과 맥을 같이한다(Brody & Hall, 2008; Fischer & LaFrance, 2015).

또한,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

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연구대상자 중 남성은 100명(40%), 여성은 150명(60%)이 응답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학력은 대학원 이상이 38명(15.2%), 대학교 졸업 139명(55.6%), 전문대 졸업 및 대학 중퇴 56명(22.4%), 고등학교 졸업 17명(6.8%)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 자녀의 성별은 남아 132명(52.8%), 여아 118명(47.2%)으로 거의 균등하였다. 자녀의 나이는 초등학교 1~2학년인 만 7~8세가 79명(31.6%), 3~4학년인 만9~10세가 83명(33.2%), 5~6학년인 만11~12세가 88명(35.2%)으로 연령대별로 균등하게 조사에 참여하였다.

## 연구도구

### 부모의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부모의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측정하기 위해 Garnefski 등(2001)이 개발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질문지(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CERQ)를 김소희(2004)가 번안하고, 안현의 등(2013)이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다양한 상황에서 정서에 압도당하지 않고 인지적인 방법으로 정서를 통제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측정한다(김예진 등, 2021). 본 연구에서는 ‘조망 확대’, ‘계획 다시 생각하기’, ‘긍정적 초점 변경’, ‘수용’, ‘긍정적 재평가’의 총 5개의 하위요인인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20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부정적인 일이나 불쾌한 일을 경험할 때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표시한다. 예로는 ‘나는 그 일이 그만하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생각한다.’, ‘그 일과 아무 상관없는 즐거운 일을 생각해본다.’, ‘그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여

표 1. 연구대상자의 특성 (N=250)

변수	구분	빈도	퍼센트
연구대상자의 성별	남성	100	40
	여성	150	60
연구대상자의 학력	대학원 이상	38	15.2
	대학교 졸업	139	55.6
	전문대 졸업 및 대학 중퇴	56	22.4
	고등학교 졸업	17	6.8
자녀의 성별	남아	132	52.8
	여아	118	47.2
자녀의 나이	초1~2학년 (만7~8세)	79	31.6
	초3~4학년 (만9~10세)	83	33.2
	초5~6학년 (만11~12세)	88	35.2
전체		250	100.0

야 한다.’ 등이 있다. 각 문항별로 ‘거의 그렇지 않다(1점)’부터 ‘거의 항상 그렇다(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평균이 높을수록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측정도구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89로 나타났다.

### 부모의 정서표현성

부모의 정서표현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Halberstadt, Cassidy, Stifter, Parke & Fox (1995)가 제작한 가정에서의 자기표현 질문지(Self-Expressiveness in the Family Questionnaire)를 한영민(2005)이 번역하고 최종적으로 교수, 대학원생 등의 검토를 거쳐 9점 척도에서 5점 척도로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가정 내에서 비언어적·언어적 표현을 지속적인 스타일로 표현하는 태도를 측정하며, 긍정적 정서표현과 부정적 정서표현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한영민, 2005).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정서표현’ 23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평소 본인이 가족에게 표현하는 정도를 묻는 문항이다. 예로는 ‘가정에서 나는 가족구성원들이 해 준 일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한다.’, ‘가정에서 나는 누군가가 일을 잘했을 때 칭찬한다.’, ‘가정에서 나는 감동했을 때 이를 표현한다.’ 등이 있다. 각 문항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항상 그렇다(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평균이 높을수록 긍정적 정서표현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긍정적 정서표현 측정도구의 Cronbach's  $\alpha$ 는 .93이었다.

###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임정

하(2003)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한국적 양육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불신’, ‘가르침’, ‘관심’, ‘존중’의 4가지 하위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관심’과 ‘존중’ 하위요소를 긍정적 양육행동 척도로 사용하였다. 관심 요인은 자녀를 정성으로 대하고 자녀의 생활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과 관련되며, 존중 요인은 자녀의 의견과 감정을 수용해주는 것과 관련이 있다(임정하, 2003). 긍정적 양육행동 척도는 ‘관심’ 6문항, ‘존중’ 5문항(총 1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의 예로는 ‘우리 아이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주려고 노력한다.’, ‘우리 아이의 학교생활에 관심을 갖는다.’, ‘우리 아이의 의견에 찬성하지 않을 때도 아이의 의사를 존중해준다.’, ‘우리 아이가 어떤 일에 대해 화를 내면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등이 있다. 각 문항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평균이 높을수록 긍정적 양육행동이 높은 것으로, 본 연구에서 긍정적 양육행동 측정도구의 Cronbach's  $\alpha$ 는 .86이었다.

### 자녀의 정서·행동문제

자녀의 정서·행동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Goodman(1997)이 개발한 강점·난점 설문지를 안정숙 등(2003)이 표준화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한국어판 강점·난점 척도(Strengths and Difficulties Questionnaire; SDQ-Kr)’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16세까지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를 선별하는 도구로 개발되었고, 다섯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지향’, ‘과잉행동’, ‘정서증상’ 세 하위요인을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은 5문항(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로는 ‘내 아이는 차분하지 않고

부산하며 오랫동안 가만히 있지 못한다.’, ‘내 아이는 언제나 안절부절 못하고 꼼지락 거린다.’, ‘내 아이는 자주 두통이나 복통을 호소하거나 몸이 아프다고 한다.’, ‘내 아이는 걱정이 많고 종종 근심스러워 보인다.’ 등이 있다.

각 문항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분명히 그렇다(3점)’까지 Likert 3점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평균이 높을수록 자녀의 정서·행동문제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자녀의 정서·행동문제 측정도구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74로 나타났다.

## 연구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25년 7월부터 8월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었다. 연구 대상의 표집 및 설문 조사는 전국 단위의 다수 패널을 보유한 리서치 대행사(엠브레인)를 통하여 온라인 자기보고식으로 진행 및 수집하였으며, 중복응답은 불가능하였다. 해당 기관이 보유한 패널 중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에 부합하는 참여자를 무작위 표집하였다. 연구 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설문 시작 화면에 연구의 목적과 절차, 비밀 보장 및 연구 참여 철회 등에 대한 안내문을 제시하였고 이에 동의한 참여자에게 한하여 설문이 진행되도록 하였다.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설문 문항에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누락된 자료는 리서치 기관의 정제 과정을 통하여 사전 배제하였다. 총 250명의 자료를 전달받아 분석에 사용하였다.

##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3.0 통계 프로

그램을 활용하여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Cronbach's  $\alpha$ ) 및 연구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Hayes(2018)의 SPSS Process Macro Model 6를 활용하여 부모의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의 순차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95% 신뢰도 구간에서 부트스트랩 검증(Bootstrap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샘플 수는 5,000번으로 지정하였다.

## 결 과

###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의 변인들인 부모의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일반적인 정규성 가정의 충족을 위해 왜도는  $\pm 3$ 미만, 첨도는  $\pm 10$ 미만으로 보는데(Kline, 2005), 모든 변인이 기준치를 만족하여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다.

변인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상관분석 결과, 부모의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 = .54, p < .001$ ). 부모의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 역시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 = .46, p < .001$ ). 또한, 부모의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간

표 2.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N=250)

변인	1	2	3	4
1. 부모의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			
2. 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	.54***	-		
3.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	.46***	.65***	-	
4.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22**	-.30***	-.35***	-
평균	3.61	3.92	4.04	2.11
표준편차	0.55	0.51	0.45	0.54
왜도	-0.51	-0.29	-0.52	0.57
첨도	1.38	-0.14	-0.04	0.44

\* $p < .05$ , \*\* $p < .01$ , \*\*\* $p < .001$

에는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r = -.22$ ,  $p < .01$ ). 즉, 부모의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높을수록 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긍정적 양육행동이 높아질 수 있으며,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는 낮아질 수 있다.

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 = .65$ ,  $p < .001$ ). 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사이의 관계에서는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 = -.30$ ,  $p < .001$ ). 마지막으로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서도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 = -.35$ ,  $p < .001$ ). 이를 통해 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이 늘어나면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늘어날 수 있으며, 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부모의 양육행동이 늘어나면 아동의 정서·행동문제가 줄어들 수 있다.

### 부모의 인지적 정서조절과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긍정적

### 정서표현 및 양육행동의 순차 매개효과

부모의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긍정적 양육행동의 순차매개효과를 검증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부모의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B = .500$ ,  $p < .001$ ). 또한, 부모의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 = .127$ ,  $p < .01$ ). 그리고 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은 긍정적 양육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 = .495$ ,  $p < .001$ ),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 = -.319$ ,  $p < .01$ ). 반면, 부모의 적응적 인지조절 전략이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 역시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직접적으로 미치지

표 3. 부모의 인지적 정서조절과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간의 관계에서 긍정적 정서표현 및 양육행동의 순차 매개효과 (N=250)

구분	<i>B</i>	<i>SE</i>	<i>t</i>	LLCI	ULCI	<i>F</i>	<i>R</i> <sup>2</sup>
(상수)	2.111	.181	11.671***	1.7552	2.4679	101.890***	.291
부모의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 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	.500	.049	10.094***	.4024	.5975		
(상수)	1.646	.176	9.355***	1.2996	1.9927	96.445***	.439
부모의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	.127	.046	2.753**	.0360	.2171		
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 →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	.495	.049	9.974***	.3972	.5927		
(상수)	3.988	.309	12.896***	3.3787	4.5969	12.577***	.133
부모의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038	.071	-.535	-.1765	.1011		
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 →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114	.088	-1.289	-.2892	.0604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 →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319	.096	-3.324**	-.5087	-.1302		

\**p* < .05, \*\**p* < .01, \*\*\**p* < .001

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순차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신뢰구간 95%에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총 간접효과(*B* = -.177 CI = -.2729 ~ -.0974)는 상한값(ULCI)과 하한값(LLCI)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의 적응적 인지조절 전략이 긍정적 정서표현을 매개하여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로 가는 간접효과(*B* = -.057 CI = -.1378 ~ .0154)는 상한값(ULCI)과 하한값(LLCI) 사이에 0이 포함되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적응적 인지조절 전략이 긍정적 양육행동을 매개하여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로 가는 간접효과(*B* = -.040, CI = -.0849 ~ -.0091)는 상한값(ULCI)과 하한값(LLCI)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적

표 4. 부모의 인지적 정서조절과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간의 관계에서 긍정적 정서표현 및 양육행동의 순차매개효과 검증 (N=250)

경로	<i>B</i>	<i>BootSE</i>	95% 신뢰구간	
			LLCI	ULCI
총 간접효과	-.177	.044	-.2729	-.0974
부모의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 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 →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057	.039	-.1378	.0154
부모의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 →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040	.019	-.0849	-.0091
부모의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 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 →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 →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079	.026	-.1366	-.0326

음적 인지조절 전략이 긍정적 정서표현과 긍정적 양육행동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로 가는 간접효과( $B = -.079, CI = -.1366 \sim -.0326$ )는 상한값(ULCI)과 하한값(LLCI)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간접효과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총효과  $\beta = -.217, p < .001$ ). 이는 부모의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긍정적 양육행동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였을 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2). 즉, 부모의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높을수록 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이 높아지고,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높여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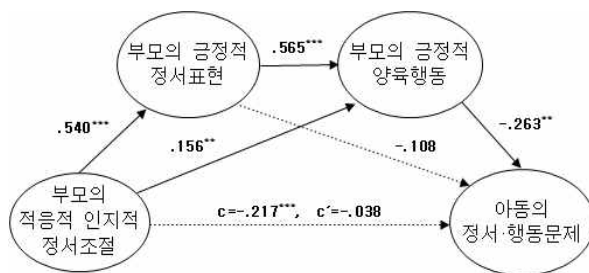


그림 2. 각 경로별 효과크기

## 논 의

본 연구는 초등학생 학령기 아동(만 7~12세)을 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의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에 따른 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성 및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고,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와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성과 양육행동 과정이 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부모의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를 직접적으로 예측하지 못했으며, 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성과 긍정적 양육행동의 순차적인 경로를 거쳐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 양육 상황에서 부모의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자녀에게 직접 영향을 주기보다는 부모의 정서표현 방식과 양육행동을 통해서 발현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의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양육행동이 자녀의 정서·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 연구(김희경, 이완정, 2022; 전인옥, 2012; 정명아, 김연수, 2025)와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Gong 등(2022)은 부모의 정서조절이 양육행동을 통하여 아동의 행동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어머니의 정서조절 전략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보다, 양육행동을 통하여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지연, 김진경, 2018; 송정화, 이영순, 2020)와도 일치하는 결과였다. 부모의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정서표현성을 거쳐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작동시키는 선행요인으로서 작용함을 보여 주었다.

이는 부모의 정서조절 능력과 같은 심리적 자원이 양육행동이라는 매개적 과정을 통해 기능한다는

Belsky(1984)의 양육과정 모델이 그 근거를 뒷받침 해준다. 또한 Bao와 Kato(2020)는 Belsky 모델을 확장하여 어머니의 정서조절 능력이 긍정적 양육행동을 예측하는 핵심적인 심리자원이라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부모의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부모 자신의 정서표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양육행동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며, 이 과정을 통해 자녀의 정서·행동문제를 감소시키는 보호 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 부모의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긍정적 정서표현을 거쳐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로 이어지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 자신의 정서를 적응적으로 조절하여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를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데 한계가 있음을 말한다.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은 유아기와 달리 학교와 같은 복잡한 환경에 노출되고, 보다 고차원적인 행동 조절 능력을 요구받는다(Eisenberg et al., 2010). 이에 부모가 단순히 긍정적인 정서적 분위기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양육행동으로 개입해야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Dix(1991)는 부모의 정서가 양육행동을 조직화한다고 하였듯이, 부모의 긍정적인 정서표현이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를 직접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양육행동을 긍정적으로 실천하도록 만들어 주는 선행 기제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즉, 부모가 단순히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자녀의 정서·행동문제를 줄이거나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고, 부모의 지지나 관심과 같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행동적 개입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단순히 인지적으로 정서를 조절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것만으로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를 변화시킨다고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양육행동으로 실천되어야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밝은 표정이나 긍정적 마음을 표현하는 것만으로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지와 관심 및 격려 등과 같은 구체적인 양육행동을 통하여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긍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긍정적 정서표현을 추가로 거칠 때 긍정적 양육행동이 촉진될 수 있는 순차적 경로를 확인하였다. 즉, 부모의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긍정적 정서표현을 이끌어내고(천순미, 이경민, 2023), 이것이 다시 긍정적인 양육행동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아동의 정서·행동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최근 심리학 연구에서 등장한 ‘정서가 한 개인의 환경 속에서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통제체계라는 관점’(Greenberg, 2002)을 바탕으로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로 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을 살펴보고, 이 정서표현성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인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살펴보았다. 기존에 단편적으로 다루어졌던 부모 변인들을 통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내적 인지와 정서가 실제 양육행동으로 발현되는 인지-정서-행동의 단계적 모형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은 타인의 정서를 파악하는 인지 능력이 급격히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이고(곽윤정, 2004; 이지연, 2012), 사회적 인지 능력이

발달하여 부모의 행동뿐만 아니라 부모의 감정처리 방식, 미묘한 표정이나 태도까지 예민하게 관찰하고 모델링하는 시기이다(Spinrad & Eisenberg, 2023). 이 시기의 아동에게는 단순한 긍정적 정서 표현을 넘어 구체적인 양육행동이 수반되어야 함을 밝혔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서·행동문제가 나타나는 초등학교 아동에 대한 진단·선별 및 치료 같은 사후적 접근에 치중하고 있고, 사전 예방적인 접근은 부족한 실정이다(김유리 등, 2025). 하지만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는 이미 발생한 뒤에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를 예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고,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요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가 정서표현성이고, 이 정서표현성은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으로 긍정적인 정서표현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를 상담이나 교육 현장에서 활용한다면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를 예방하는 데 더욱 효과적 접근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요즘 상담 및 교육 현장에서 인지-행동을 기반으로 하는 접근이 많이 시도되고 있는데, 인지-행동적 접근은 역기능적 사고나 신념을 적응적·합리적 사고로 바꾸어 내면화함으로써 인지적으로 내면을 재구조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김예진, 이동귀, 2021). 즉, 부모 상담이나 부모 교육 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 정서표현을 촉진하여 긍정적 양육행동을 키우는 단계적 개입이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부모들의 자기보고식 설문을 바탕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자녀의 인식, 교사 등의 다양한 시각과 대상으로 표본을 확장하여 일반화하면 연구를 더욱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 대상을 초등학교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표본의 세부적 요인들을 살펴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 초등학교 시기의 아동은 저학년과 고학년 등의 학년별 특성이 다를 수 있고, 성별에 따라도 다를 수 있기에 이를 세분화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여 부모에 따른 변인들의 차이점을 살펴보는 다집단 분석 등의 추후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한계점이 있지만,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를 예방하고 개입할 때, 부모의 개인 내적 요인인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긍정적 정서표현 및 양육행동을 고려한 상담 개입 및 부모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 참고문헌

강갑주 (2016). **고등학생의 정서인식, 정서표현이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고미숙 (2015).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및  
포래애착이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4(6), 783-793.  
<https://doi.org/10.5934/kjhe.2015.24.6.783>
- 곽윤정 (2004). 뇌 발달에 따른 감성교육의 방향  
모색. **교육심리연구**, 18(3), 195-212.
- 권미나 (202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잠재유형에 따른 삶의 만족 및 정서·행동 문  
제의 차이 비교. **정서·행동장애연구**, 41(1),  
27-42.
- 길혜지, 황정원 (2017).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 에  
따른 취학 전 아동의 문제행동 차이 분석. **육  
아정책연구**, 11(1), 127-154.  
<https://doi.org/10.5718/kcep.2017.11.1.127>
- 김명순 (2013).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창의적  
인성 및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선희, 김경연 (2001).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 유  
형에 따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인과 모형.  
**아동학회지**, 22(1), 19-34.
- 김소희 (2004). 스트레스 사건,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가  
톨릭대학교 대학원.
- 김영수 (2022). 분리-개별화와 갈등해결전략의 관  
계: 인지적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한국웰니스학  
회지**, 17(1), 327-336.
- 김예진, 이동귀 (2021). 어머니의 부적응적 완벽주  
의 성향과 유아의 문제행동의 관계: 어머니의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통제적 양육행동의 매  
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4(4), 45-66.  
<https://doi.org/10.35574/KJDP.2021.12.34.4>  
.45
- 김유리, 용정순, 이유정 (2025). 사회정서학습에 기  
반한 교실 속 문제행동 예방 및 문제행동을 보  
이는 학생 지원 방안: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국교육문제연구**, 43(1), 299-328.
- 김은영 (2009).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대인관계문제  
와의 관계: 인지적 정서 조절의 매개효과. 석사  
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김지연, 김진경 (2018). 어머니의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4(1), 163-182.
- 김청, 이효림, 정정희 (2015). 부모의 정서사회화  
행동,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및 유아교육기  
관 적응간의 구조관계 분석. **아동교육**, 24(2),  
123-144.  
<https://doi.org/10.17643/KJCE.2015.24.2.07>
- 김희경, 이완정 (2022). 어머니의 자기 분화가 긍정  
적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지적 정서  
조절과 부부친밀감의 이중매개효과 검증. **아동  
과 권리**, 26(4), 543-562.  
<https://doi.org/10.21459/kccr.2022.26.4.543>
- 남연서, 홍혜영 (2022). 중학생의 스트레스가 우울  
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인지적 정서조  
절전략의 매개된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9  
(10), 377-404.
- 노원경, 김태은, 정은주, 김의정 (2013). 초등교사  
가 인식한 정서 및 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의  
문제행동 특성과 학급차원의 지원방안. **한국교  
원교육연구**, 30(3), 221-247.  
<https://doi.org/10.24211/tjkte.2013.30.3.221>
- 라성운 (2004). 초등학생이 인식한 부모양육태도,  
교사관계, 친구관계, 정서행동문제 간 구조관  
계. **열린부모교육연구**, 16(3), 29-56.  
<http://dx.doi.org/10.36431/JPE.16.3.2>
- 박근아 (2017). 정서표현 양가성이 외로움에 미치는

- 영향: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정서표현성의 매개 효과.** 석사학위 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박상현, 백영선, 남숙경, 강영모, 전상희 (2023).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긍정적행동지원의 일반학교 사례를 중심으로(서교연 2023-87).**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 박선영 (2010).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정서인식, 정서수용 및 양육태도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4)**, 19-38.
- 박혜련 (2003). **초등학교 아동의 부모양육태도와 문제행동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 배민정, 정윤경 (2015).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이 양육태도와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8(2)**, 159-174.
- 배유림, 박영신 (2015).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행동이 아동의 정서조절방략에 미치는 영향: 공감의 매개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31(3)**, 229-249.
- 백승영 (2016). 아동·청소년의 성별 및 학업성취 수준과 정서행동문제 차이분석. **인문사회 21, 7(5)**, 659-675.  
<https://doi.org/10.22143/HSS21.7.5.34>
- 백예은, 정혜원 (2024). 청소년 정서행동문제의 변화 양상과 가정 및 학교 영향 요인 검증: 2006년과 2015년 코호트의 비교. **조사연구, 25(4)**, 75-111.
- 봉희지, 최은실 (2021). 어머니와 유아 기질 군집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정서행동문제의 관계. **열린부모교육연구, 13(1)**, 165-191.
- 성민아, 이영애 (2020).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8(1)**, 151-172.
- 송정화, 이영순 (2020). 어머니의 정서조절곤란이 유아의 공격성 및 위축행동에 미치는 영향: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3)**, 853-875.
- 안현의, 이나빈, 주혜선 (2013). 한국판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척도(K-CERQ)의 타당화. **상담학연구, 14(3)**, 1773-1794.  
<https://doi.org/10.15703/kjc.14.3.201306.1773>
- 안정숙, 전성균, 한준규, 노경선, Robert, G (2003). 한국어판 강점·난점 설문지(Strengths and Difficulties Questionnaire) 개발. **신경정신의학, 42(1)**, 141-147.
- 안지영, 이은경, 김지신 (2021).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협동심, 또래관계의 순차적 다중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26(2)**, 73-94.  
<https://doi.org/10.13049/kfwa.2021.26.2.3>
- 안지현, 이승연 (2013). 중학생의 내현적 자기애, 수치심, 분노,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와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1)**, 61-84.
- 엄성혜, 전효정, 고은경 (2017). 부의 양육참여가 모의 온정적 양육에 미치는 영향에서 모가 지각한 부부갈등 및 결혼만족도의 매개효과: 모의 우울과 자아존중감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38(1)**, 157-171.
- 유안진, 한미현 (1995). 아동행동평가척도(CBCL)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16(2)**, 5-21.
- 유주희 (2009).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자기조절능력 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유지연, 황혜정 (2017). 부모의 양육방식 유형에 따

- 른 청소년의 사회·정서발달 특성: 중학생 3학년의 자아인식, 정서문제, 또래애착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14**(1), 119-144.
- 유효정, 박용한 (2022). 어머니의 정서표현, 정서반응과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친사회적 행동, 학습동기 간의 관계. **교육방법연구**, **34**(2), 213-233. <https://doi.org/10.17927/tkjems.2022.34.2.213>
- 이경석, 최옥주, 김준호 (2017). Longitudinal Study on the Effects of Negative Rearing Experiences on Adolescents' Social Withdrawal and Aggression.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Family Medicine**, **38**(5), 276-283. <https://doi.org/10.4082/kjfm.2017.38.5.276>
- 이도현, 장인아, 이찬희, 강수현, 서정재, 김지근, 박종규 (2024). 청소년 정서행동문제 공동발달의 유형 탐색: 또래 및 부모 긴장의 시간의존적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21**(3), 301-326. <https://doi.org/10.16983/kjsp.2024.21.3.301>
- 이승희 (2012). 정서행동장애 정의와 출현율의 개념 및 관계에 대한 체계적 고찰. **정서·행동장애연구**, **28**(3), 37-59.
- 이승희, 김광웅 (2004). 아동이 지각한 부모간 갈등 및 부모자녀 관계와 아동의 행동문제. **인간발달연구**, **11**(1), 129-143.
- 이영준, 송원영, 최의겸, 신의진 (2003). 아동의 정서 및 행동 문제와 어머니의 우울증, 양육 스트레스간의 관계.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4**(2), 218-228.
- 이월령, 이은정 (2014). 유아의 정서 및 행동문제에 대한 중재 고찰: 2000~2013년 국내 실험연구를 중심으로. **정서·행동장애 연구**, **30**(4), 401-428.
- 이의빈 (2021).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 우울, 부정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 간 관계. **청소년학연구**, **28**(5), 85-114. <https://doi.org/10.21509/KJYS.2021.05.28.5.85>
- 이정미, 양명숙 (2006). 청소년 전환기 문제행동: 가정 및 학교 환경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7**(3), 865-883.
- 이지연 (2012). 학령기 아동의 정서지능과 또래관계: 조망수용능력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2), 263-283.
- 이지연, 김혜연 (2017). 청소년의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연구-부모의 긍정적 강화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중심으로. **코칭연구**, **10**(3), 5-27.
- 이하늘, 김정민 (2022).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신념과 정서표현양가성의 이중매개효과. **가정과삶의질연구**, **40**(4), 15-33. <https://doi.org/10.7466/JQHL.2022.40.4.15>
- 이형민 (2019).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행동문제간의 관계에서 실행기능의 매개적 효과. **한국생활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61**.
- 임숙현, 곽경화 (2023).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24), 719-733.
- 임정하 (2003). **한국적 양육행동 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장희선 (2023). 초등학교 4-5학년 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잠재전이분석과 부모 양육행동, 사회적 관계의 영향요인 검증. **한국교육문제연구**, **41**(3), 49-82. <https://doi.org/10.22327/kei.2023.41.3.049>

- 전인옥 (2012).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정서인식 명확성과 인지적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 정명아, 김연수 (2025). 부모소진과 유아기 문제행동 간 관계에서 어머니의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거부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8(2), 37-56.  
<https://doi.org/10.35574/KJDP.2025.6.38.2.37>
- 정윤경, 박보은 (2010). 정서 표현성과 정서표현양가성의 발달적 관련 변인: 회고된 어머니의 정서 표현 양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4), 111-125.
- 정현희, 오미경 (2000). 아동의 감각추구성향 및 어머니 양육행동과 남녀 아동의 문제 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6), 171-183.
- 정호영, 최은실 (2020).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따른 매개효과. **열린부모교육연구**, 12(4), 51-69.
- 조미정, 이주연 (2022).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와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력의 매개효과. **인간발달연구**, 29(3), 235-258.  
<https://doi.org/10.15284/kjhd.2022.29.3.235>
- 조윤미, 이숙 (2015).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가 내재화·외현화 정서행동 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 심리치료학회지**, 10(3), 21-39.
- 천순미, 이경민 (2023). 어머니의 공감과 유아의 사회정서유능감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의 매개효과. **인문사회과학연구**, 24(3), 603-625.  
<https://doi.org/10.15818/ihsp.2023.24.3.603>
- 최영훈 (2006). 한국어판 강점·난점 설문지(SDQ-Kr)와 아동행동조사표(K-CBCL)의 비교.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하문선 (2021). 아동의 집행기능곤란 잠재계층과 정서행동문제 간 관계 및 영향변인 검증: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의 적용. **아시아교육연구**, 22(4), 801-825.  
<https://doi.org/10.15753/aje.2021.12.22.4.801>
- 한소현 (2020).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정서수용태도를 매개변인으로. 석사학위논문, 가천대학교 특수치료대학원.
- 한영민 (2005). 부모의 정서표현 및 유아에 대한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허묘연, 옥정 (201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이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또래애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지**, 13(3), 116-123.
- 홍서준, 최아영 (2024).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정서행동 문제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 및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 검증. **산업융합연구**, 22(12), 191-200.  
<https://doi.org/10.22678/JIC.2024.22.12.191>
- 홍애경 (2000).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및 정서지능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전주교육대학교 대학원.
- 홍원준 (2020). 중학생 정서·행동문제의 잠재프로파일 분석: 부모의 양육태도,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31(2), 291-320.  
<https://doi.org/10.14816/sky.2020.31.2.291>
- 홍윤기 (2009). 어머니 자녀간 정서표현성과 정서표

- 현 양가성의 관련성.**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 Bandura, A. (1977). *Social learning theory*. Prentice Hall.
- Bao, J., & Kato, M. (2020). Determinants of maternal emotion socialization: Based on Belsky's process of parenting model. *Frontiers in Psychology, 11*, 2044. <https://doi.org/10.2307/1129832>
- Beck, A. T. (1976).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ional disorders.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1), 83-96. <https://doi.org/10.2307/1129832>
- Brody, L. R., & Hall, J. A. (2008). Gender and emotion in context. In M. Lewis, J. M. Haviland-Jones, & L. Feldman Barrett (Eds.), *Handbook of emotions* (3rd ed., pp. 395-408). Guilford Press.
- Danzig, A. P., Dyson, M. W., Olino, T. M., Lupton, R. S., & Klein, D. N. (2015). Positive parenting interacts with child temperament and negative parenting to predict children's socially appropriate behavior.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34*(5), 411-435. <https://doi.org/10.1521/jscp.2015.34.5.411>
- Dix, T. (1991). The affective organization of parenting: Adaptive and maladaptive processes. *Psychological Bulletin, 110*(1), 3-25. <https://doi.org/10.1037/0033-2909.110.1.3>
- Ellis, A. (1994). Reason and emotion in psychotherapy. *Birch Lane Press*.
- Eisenberg, N., Cumberland, A., & Spinrad, T. L. (1998).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Inquiry, 9*(4), 241-273. [https://doi.org/10.1207/s15327965pli0904\\_1](https://doi.org/10.1207/s15327965pli0904_1)
- Eisenberg, N., Spinrad, T. L., & Eggum, N. D. (2010). Emotion-related self-regulation and its relation to children's maladjustment.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6*, 495-525. <https://doi.org/10.1146/annurev.clinpsy.121208.131208>
- Fischer, A., & LaFrance, M. (2015). What drives the smile and the tear: Why women are more emotionally expressive than men. *Emotion Review, 7*(1), 22-29. <https://doi.org/10.1177/1754073914544406>
- Friedman, H. S., Prince, L. M., Riggio, R. E., & DiMatteo, M. R. (1980). Understanding and assessing nonverbal expressiveness: The Affective Communic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2), 333-351. <https://doi.org/10.1037/0022-3514.39.2.333>
- Garnefski, N., Kraaij, V., & Spinhoven, P. (2001). Negative life event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emotional proble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8), 1311-1327. [https://doi.org/10.1016/S0191-8869\(00\)00113-6](https://doi.org/10.1016/S0191-8869(00)00113-6)

- Garnefski, N., & Kraaij, V. (2007). Th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Psychometric features and prospective relationships with depression and anxiety in adults.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23*(3), 141-149.  
<https://doi.org/10.1027/1015-5759.23.3.141>
- Gong, Y., Zhang, X., & Wang, M. (2022). Parental emotion regulation and child behavior problems: The mediating role of parenting behavior.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43*, 106700.  
<https://doi.org/10.1016/j.chilyouth.2022.106700>
- Goodman R. (1997). The Strengths and Difficulties Questionnaire: A Research Not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8*(5), 581-586.  
<https://doi.org/10.1111/j.1469-7610.1997.tb01545.x>
- Greenberg, L. S. (2002). Integrating an emotion-focused approach to treatment into psychotherapy integration. *Journal of Psychotherapy Integration, 12*(2), 154-189.  
<https://doi.org/10.1037/1053-0479.12.2.154>
- Gross, J. J. (2015). Emotion regulation: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Psychological Inquiry, 26*(1), 1-26.  
<https://doi.org/10.1080/1047840X.2014.940781>
- Gross, J. J., & John, O. P. (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two emotion regulation processes: implications for affect, relationships,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2), 348-362.  
<https://doi.org/10.1037/0022-3514.85.2.348>
- Halberstadt, A. G., Cassidy, J., Stifter, C. A., Parke, R. D., & N. A. Fox (1995). Self-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context: Psychometric support for a new measure. *Psychological Assessment, 7*(1): 93-103.  
<https://doi.org/10.1037/1040-3590.7.1.93>
- Hayes, A. F. (2018).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2nd ed.). Guilford Press.
- Kauffman, J. M. (1993). Special problems in the inclusion of students with emotional or behavioural disorders in general education classrooms and schools. *Special Education Perspectives, 2*(1), 23-28.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2nd ed.). Guilford Press.
- Lewis, C., & Lamb, M. E. (2003). Fathers' influences on children's development: The evidence from two-parent families.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of Education, 18*(2), 211-228.  
<https://doi.org/10.1007/BF03173485>
- MacNeill, L. A., & Pérez-Edgar, K. (2023). Parental positive affect and child adjustment: The moderating role of

- environmental unpredictability. *Developmental Psychology*, 59(6), 1152-1164.  
<https://doi.org/10.1037/dev0001518>
- McHale, J. P., Johnson, D., & Sinclair, R. (1999). Family dynamics, preschoolers family representations, and preschool peer relationship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0(3), 373-401.  
[https://doi.org/10.1207/s15566935eed1003\\_4](https://doi.org/10.1207/s15566935eed1003_4)
- Mendolia, M. and Kleck, R. E. (1993). Effect of Talking About a Stressful Event on Arousal : Does What We Talk About Make a Differ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2), 282-293.  
<https://doi.org/10.1037/0022-3514.64.2.283>
- Morelen, D., Shaffer, A., & Suveg, C. (2016). Maternal emotion regulation: Links to emotion parenting and child emotion regulation. *Journal of Family Issues*, 37(13), 1891-1916.  
<https://doi.org/10.1177/0192513X14550325>
- Parkinson, B., & Totterdell, P. (1999). Classifying affect-regulation strategies. *Cognition & Emotion*, 13(3), 277-303.  
<https://doi.org/10.1080/026999399379230>
- Seligman, M. E. P., & Csikszentmihalyi, M. (2000). Positive psychology: An introduction. *American Psychologist*, 55(1), 5-14.  
<https://doi.org/10.1037/0003-066X.55.1.5>
- Shonkoff, J. P., & Phillips, D. A. (2000). *From Neurons to Neighborhoods: The Science of Early Childhood Development*. National Academy Press.
- Spinrad, T. L., & Eisenberg, N. (2023). Parental socialization of children's emotion and its regulation. In J. J. Gross & B. Q. Ford (Eds.). *The Cambridge handbook of emotion regulation and parent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 Ulfig, N., Jennings, J. R., & Gianaros, P. J. (2016). The role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emotional expressivity,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on stress appraisals and cardiovascular reactivity. *Cognition and Emotion*, 30(6), 1150-1165.  
<https://doi.org/10.1080/02699931.2015.1044421>
- Zimmer-Gembeck, M.J., Rudolph, J., Kerin, J., & Bohadana-Brown, G. (2022). Parent emotional regulation: A meta-analytic review of its association with parenting and child adjus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46(1), 63-82.  
<https://doi.org/10.1177/01650254211051061>

## The Effect of Parent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n Children's Emotional-Behavioral Problems: Sequential Mediation of Parental Positive Emotion Expression and Parenting Behavior

Donghyeon Kim<sup>1</sup>

Hanik Jo<sup>2</sup>

Department of Learning Sciences, Hanyang University/ Student<sup>1</sup>

Department of Learning Sciences, Hanyang University/ Professor<sup>2</sup>

This study examined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parents' posi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positive parenting behaviors on the association between parent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o this end, an online self-report survey was administered to parent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to assess their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posi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positive parenting behaviors, and children's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Using Hayes' (2018) PROCESS Macro Model 6,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sequential mediation of posi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positive parenting behavio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their children's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se findings empirically support a process linking parent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to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parenting behaviors, suggesting that cognitive, emotional, and behavioral interventions that enhance parent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promote posi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parenting behaviors in parental education and counseling settings may help alleviate or prevent children's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Keywords* :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y, positive emotional expression, positive parenting behavior, children's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